

질병 발견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사망률 높아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침묵의 장기간·췌장

'간'과 '췌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암 등 질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어 치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없을까? 침묵의 끝에서 무방비 상태로 암을 맞아야만 하는지,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몸의 중심 장기 '간'...생명유지 역할 전 세계적으로 K-pop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그룹에서 뛰어난 비주얼과 재능을 모두 갖춘 멤버는 '센터'라고 불리며 그룹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도 아이돌그룹의 '센터 멤버'처럼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가 '간'이다.

체내에서 가장 큰 장기인 간은 무게가 약 1천500g이고 오른쪽 늑골에 싸여 횡격막 아래 복강 내에 위치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간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해 온몸의 세포로 분배하며,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호르몬·비타민·무기질 대사에 관여한다. 둘째, 몸에 들어온 약물이 나 알코올, 기타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해독 작용을 한다. 셋째, 담즙을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넷째, 독소나 세균에 대한 면역반응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대장점막을 통해 혈액에 흡수된 균은 간을 거치면서 대사작용(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쿠퍼세포에 의해 소멸되고 1% 미만의 세균만 간을 통과할 수 있다. 간경변증 환자는 이 기능이 저하돼 각종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

◇숨어있는 '췌장'...소화효소·호르몬 분비

췌장은 상복부 중앙을 가로지르며, '위'의 뒤에 위치해 '십이지장'과 연결되며 '비장'과 인접해 복강 내 어느 장기

보다 깊숙이 숨어 있는 장기이다. 전체 길이는 15cm, 무게는 100g이라 '간'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췌장은 음식물 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간실질 내 신경세포 적어 통증 느끼기 어려워 췌장도 자각증상 등 없어...상복부초음파 등 정기검진 필수

◇왜 '침묵의 장기'로 불릴까?

간실질 내에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기 어려워 신경이 많은 간의 피막에 종양이 침범한 후이나 복부 불편감 등 통증이 나타난다. 이에 증상이 나타날 즈음엔 간 전반에 걸쳐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렵다.

췌장도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종양이 생기더라도 자각증상이 없고, 복통, 황달,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

한다. 막연한 상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소화장애 등 일반적인 증상들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간혹 허리와 등 통증으로 척추센터를 찾았다가 췌장암을 발견하는 환자도 있다. 지난 봄, 등 통증을 호소하며 척추 MRI를 촬영하고자 본원에 방문한 내원자가 직원의 권유로 췌장 MRI를 촬영해 췌장

암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간암·췌장암 발병률 대비 사망률 1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만3천878명이며 전체 사망자(37만2천939명)의 2.24%를 차지했다. 그 중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암 사망자 중 12.2%(1만212명)로 사망률 2위였으며, 췌장암이 8.8%(7천325명)로 4위를 차지했다. 발병률이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순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2020년 췌장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췌장암 질환은 60대 남성이 32.3%(3천46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비만·당뇨병 인구 증가, 흡연 인구 증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영상학적 진단이 보편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학회·국립암센터 권고안을 보면 간암은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이외의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발생 위험이 특히 높기 때문에 추적검사를 권고한다.

◇정기적인 검진 통한 관리가 해답! 간암과 췌장암은 일상 속 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기적인 검진에 선행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렵다. 간암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이기 때문에 A형·B형 간염항체

여부를 혈액검사에서 확인하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C형 간염은 예방백신이 없고, 혈액이나 분비물 혹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칫솔이나 면도기 등 위생용품은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췌장암도 평소 소화장애가 있어서 위·대장 내시경을 해도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당뇨병이 악화됐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간암과 췌장암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진은 상복부초음파라고 할 수 있다. 상복부초음파는 간을 비롯해 췌장, 담낭, 비장, 신장 등 배 안 장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방사선 피폭이 없고 비교적 간단한 검사라는 게 장점이다. 간암은 상복부초음파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췌장은 상복부초음파나 일반적인 복부 CT검사만으로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상복부초음파는 장내에 공기가 많거나, 비만이 심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영제를 투여해 촬영하는 복부조영 CT검사, 췌장 MRI검사 등 정밀검사를 추천한다. /정리=기수희기자

화순전남대병원-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맞손'

의학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교육과정 개발·인력 교류 등 협력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손잡고 의학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19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의생명연구원 장실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형석(사진 왼쪽) 원장, 안재숙 부원장, 김슬기 연구기획부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박성수(사진 오른쪽) 총괄운영센터장, 박상익 에너지신사업육성 사업단장, 김기태 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의학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며, 공



동 R&D 과제 기획 및 발굴 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의 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인력 교류 및 교육 관계 시설물 상호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인재 양성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혁신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경험 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 체결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광주보훈병원, '복권기금' 활용 심혈관 질환 진료 전문성 강화

핵심 장비인 심혈관조영실 확장·최신장비 도입 등

광주보훈병원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심혈관 질환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19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최근 지원받은 복권기금을 투입해 심혈관 질환 진단과 치료의 핵심 장비인 심혈관조영실을 확장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순환기내과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의료진을 영입, 치

료 및 시술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였다. 4월에는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분야의 권위자인 정명호 부장이, 11월에는 고혈압, 심부전증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김동한 부장이 진료 팀에 합류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내 중증 환자 진료와 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심혈관조영실뿐만 아니라 CT, MRI 등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유지 보수에도 복권기금을 사용해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삼용 병원장은 "심혈관조영실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 강화로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광주기독병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선정

광주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 사업

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를 막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모집,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이 선정됐

다.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광주기독병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전담팀을 구성해 항생제 적정 사용 및 중재활동 강화, 교육 및 추적조사 등 필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수희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